송기인(신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1]) 2차 구술

1. **구술자**: 송기인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0월 6일
5. **구술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자택
6. **구술분량**: 04분 2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출범과정 및 첫 만남

구술자 : 아, 민주시민협의회[2] 그게 부산에 조금 가장 아마 민주화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모임인데 민주시민협의회를 왜 만들자 했는가 하면 문익환 목사가 자꾸 날, 당감성당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의논하는 거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련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당감동 와서 주무시고 이랬는데 민통련 그거를 이제 내가 부산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지부는 하지 말자', 어지간히 우리가 그때 그 엠네스티 지부 같은 거 해보니까 서울에 돈만 주지, 뭐 아무 것도 실제 서울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말이지. 이렇게 의논이 됐어요. 인제 그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 자격으로 민통련에 참여는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그럼 비슷한 단체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서로 협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부산민주시민협의회인데 와이엠씨에이(YMCA) 강당에서 발기인대회를 하기로 하고 그때 또 조갑제 기자에게 시국상황을 좀 와서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조갑제 기자도 내려오기로 돼있고. 그래 내가 와이엠씨에이(YMCA)가니깐 경찰들이 딱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요청을 고사하고 교회로 복귀했다. 송기인 신부가 재직하는 동안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봉암 사건 등 57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나 재심을 권고했다.

2) 부산민주시민협의회의 약칭. 부산민주시민협의회는 부산지역에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던 민주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985년 5월 3일 창립한 민주단체로 부산지역 재야민주세력을 총괄한 공개기구이자 운동의 구심체였다. 1986년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회장 송기인 신부, 부회장 최성묵 목사를 비롯해 상임위원과 통일, 노동, 인권 등 8개 전문 분과를 두었는데 노동문제분과를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사무국장은 김재규, 실무는 이호철, 이성조, 윤연희가 맡았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3>, 1998, 476~477쪽 참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방에. 나는 억지로 거기에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이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지? 세상에 집회도 결사도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리곤 그게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 조갑제 기자는 다방에 앉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그래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당감성당에서 할 수 없이 민주시민협의회를 출발했는데. 그 민주시민협의회가 참 그 우리 부산에 민주화 그 단체로서는 결정적인 일을 한 단체이지.

노무현 변호사는 원래 그 시민운동을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고 늦게 픽업(pick up)된 사람인 셈이거든. 변호사로서는 그 전에 뭐 부림사건[3]도 변론했다는데 그때 나는 무슨 변호사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하고 접촉한 거는 그 미문화원사건[4]인데, 미문화원사건 하고 그 월요일 저녁에 저녁을 같이 한 자리, 그 자리가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안 그런 장소였어. 이렇게 보통 식당, 식탁대화에서 '이 양반이 머리가 비상하다' 내가 그걸 우선 느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고전을 읽었던데 고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뭐 그 뭐 어물어물 하면서 이름은 말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을 딱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 여러 번 신문에도 인용했던 건데 '이런 머리가지고 대학문도 못 밟아봤습니다'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주역으로 등장을 한 거지. 그래가 민주시민협의회도 같이 만든 셈이고.

면담자 : 그때 신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안에서 변호사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이신 거 같아요.

구술자 : 매달 모였지. 매달뿐만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고 그러니깐 무슨 교우들 모임보다는 오히려 시민들 모임이 더 많았지.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 거기에서 그 문재인이도 상당히, 말은 적게 해도 그 알맹

3)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4) 1982년 3월 벌어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말함.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 문부식, 김은숙, 김화석, 박정미 등이 미국이 12·12 사태 때 신군부의 군사 행동을 방조하고 광주학살 및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을 지원·인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 민주화운동 컬렉션 참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음.

이를 얘기를 했고, 노무현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확실히 그 직관 그러니까 핵심을 바로 잘 찾아서 얘기를 잘했고.

■ 구술자 주요이력

1938. 부산 출생

1972. 사제서품
1974. 부산인권선교협의회 회장
1983. 당감성당 주임신부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1987. 미국 보스턴 대학 연수
198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1993. 부산교회사 연구소 소장
199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995.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2005. - 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에게 '유스토'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주기도 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때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82쪽)"고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참여정부 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